



열다섯 어머니를 모신  
박종규 경찰관





1. 밤샘 철야근무에 눈꺼풀은 자꾸 내려 앉지만 아저씨는 잠자리 대신 부엌을 찾습니다. 이른 새벽에 아저씨가 부시러 부시러, 딸그락 딸그락 소리를 내며 정성스레 만든 건 녹차죽입니다.





2. 서울 노원 경찰서에 근무하고 계신 아저씨에게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 외에 14명의 어머니가 더 계십니다. 왜냐하면 아저씨는 6년째 홀로 사시는 할머니들을 마치 자신의 어머니처럼 모시기 때문입니다. 추석날 아저씨는 자신이 제일 잘 만드는 녹차죽을 가지고 외롭고 쓸쓸한 어머니들을 찾아 갑니다. “어머니, 저 왔습니다.”





3. “이런, 바쁜 사람이 왜 또 왔어?”, 공할머니는 왜 왔냐면서도 반갑게 아저씨의 손을 잡습니다. “얼굴만 봐도 든든한데 뭐 이런걸 자꾸 들고 와”, “소화가 잘 안되지않아요. 이 족 드세요.”, 공할머니와 아저씨의 따뜻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꼭 다정한 어머니와 아들의 모습입니다





나. “건강은 어떠세요? 혹시 저 없다고 끼니 거르시는건 아니시죠? 어휴.. 방은 왜 이리 추워요?”, 아저씨는 이날 이렇게 14명의 할머니 집을 방문해 손수 밥상을 차려 드리고, 손발도 주물러 드리며 밀린 청소도 했습니다 고단한 하루 일과에 밤샘근무까지 한 아저씨지만, 아저씨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14명이 어머니들을 생각하면 힘이 절로 난다고 합니다





5. 아저씨가 혼자 사시는 할머니들을 돌보게 된 것은 1999년 말 치매 증세를 보이던 한 할머니가 길을 잃고 경찰서에 찾아온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당시 할머니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서 애태웠는데 우연히 할머니의 호주머니 속에서 찾아낸 빛 바랜 사진 덕분에 노인 복지관에 계시던 할머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b. 아저씨는 그 때부터 길 잃은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을 찾아 주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 주변 지역을 돌며 홀로 사는 노인들의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노인들이 돌아가실 때 필요한 영정사진 촬영 봉사로 발전했습니다. 때론 개림직해 하는 분도 계셨지만, 아저씨는 그때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찍어 드리면 더 오래오래 사신대요.”





7. 아저씨는 영정사진을 ‘사랑의 장수사진’ 이라 이름 붙이고 액자에 넣어서 선물했고 지금까지 선물한 액자 수가 무려 900여개나 됩니다. 아저씨는 노인들이 사진을 받고 “어머, 이게 나야? 예쁘게 나왔네.” 라고 좋아하시던 모습을 보면 세상 누구보다 행복해집니다. 이렇게 시작된 봉사로 아저씨에게 지금의 열 다섯명의 어머니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